

민주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 구성”

李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 출범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 공약 제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규모 투자
안도걸 “지자체 자율성 강화 행정체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의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13일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으로 어디서나 모두가 행복한 ‘진짜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식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바라는 진짜 대한민국, 그 출발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계요소”라며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인 김태년 의원 등이 1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시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고,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수도권 ‘1극’에서 수도권·동남권(부울경)·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의 ‘5극’과 제주·강원·전북 3개의 특별자치도를 국토발전에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공약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제주·강원·전북을 특별자치도로 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놴다.

국토공간혁신위는 5선의 김태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민형배, 안도걸, 조계원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 34명이 상임 부위원장을 맡아 의제별 분과를 총괄한다.

의제별 분과는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초광역경제권 △행정주진체계혁신 △지방소멸대응 △균형발전 재정혁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AI국토·산업혁신 △공간구조·광역교통혁신 △스마트 농수축식품 △관광으로 지역활성화 등 10개로 구성됐다.

안도걸 의원은 균형발전 재정혁신 분과

장을 맡았다.

이 분과는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 세원 발굴 등 지자체의 통합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안 의원은 “그간 중앙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던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실현가능한 국토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배 상임 부위원장은 “(지자체별 자율예산권과 같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지방 분권 대안은 개헌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공동위원장은 “주요 의제별 10여개 분과에서 실천적이고 내실 있는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이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할 4기 민주정부의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49.5% vs 김문수 38.2%

한길리서치, 후보 등록 후 첫 조사

제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후보 등록 이후 진행된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11.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기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는 두 후보 간 격차가 4.9%포인트 줄었다.

한길리서치가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

명 민주당 후보 49.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8.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후보는 1.5%, 지지후보 없음은 3.1%, 잘 모름 1.9%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인 11.3%포인트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선관위, 3개 정당에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은 523억8325만320원으로, 민주당이 265억3146만9760원, 국민의힘이 242억8624만480원, 개혁신당이 15억6554만2780원을 받았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

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의석수 5석 이상~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성 출산 가산점 논란’ 민주 김문수, 선대위 사퇴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의 ‘군 복무 경력 호봉 의무반영’ 공약을 두고 한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김문수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논란 끝에 중앙선거대책본부 직책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세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김 의원이 한 시민과 문자를 주고 받는 과정

에서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며 “군 안 간 남성은 군 가산점이 없다. 남녀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가 별도의 여성 정책 공약 없이 ‘군 복무 경력 호봉 의무반영’ 정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켜 여성 지지층 일각의 불만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언급한 ‘출산 가산점’이 논란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사과문 게재 직후 당 선대위 공보단도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퍼스트레이디’ 경쟁… 김혜경·설난영 만남 ‘눈길’

조계종 행사서 비공식 환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59)씨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72)씨가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서 마주해 눈길을 모았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행사 시작 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신도회장과 함께 약 15분간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환담 자리에서 과거 인연을 꺼내며 화기애애한 덕담이 오갔고, 정치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2010~2014년) 재임 시절에 이재명 후보는 경기 성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왼쪽)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으로 일했다.이날 두 사람은 행사장 내빈석으로 마련된 원형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행사 중 사회자가 “두 분이 악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함께 무대 앞으로 나

와 두 손을 맞잡았다.

행사 말미에는 ‘국민 통합,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함께 들고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지역 대학교수 312명, 李 후보 지지 선언

“무너진 민주주의·민생 회복”

순천대, 목포대, 전남대(여수), 목포해양대, 동신대, 초당대, 목포가톨릭대 등 전남지역 대학교수 312명이 13일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초당대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등 312명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이번 6·3 대통령선거에서 위기의 민주주의

를 수호하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통합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후보”라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파탄 낸 민생경제를 부활시키고, 실추된 국가의 신임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교수들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2회, 국회의원 2선, 성남 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역임하며 보여줬던 뛰어난

리더십과 의정 및 행정의 탁월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최고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입을 모아 평가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수호냐 아니면 또다시 과거로의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홍준표 지지 모임 “李 후보 지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홍사모’, ‘홍사랑’ 등 일부 모임과 대선 경선 선거대책위원회 캠프 관계자들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연대 등 모임과 홍준표 캠프 출신 관계자들로 구성된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저희들이 속했던 국민의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저희 일차적 목표”라며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도 하도 많이 당하셔서 탈당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께서 보수 인재들을 모으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

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우리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가를 위하는 인재는 다 포용하겠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압도적 승리를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가치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상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보수·중도 이런 분들도 그쪽 언어로 ‘계몽’ 되어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